

간경변환자는 간이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A, B, C급으로 분류하는데, A급 간경변환자는 자신이 관리만 잘한다면 정상인과 차이없는 수명을 누릴 수 있으나, C급 간경변환자는 6개월을 반수에서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예후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간경변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현재 남아 있는 간의 양을 최대한 보존하고, 나아가 간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간파괴의 방지

1) 일반적 고려사항

음식물의 모든 영양소는 먹은 그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형태로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몸에 사용된다. 이것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원유를 직접 쓰지 못하고, 휘발유로 가공하여야 자동차에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우리의 간은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내장기관이다. 원유를 정유하면 슬러지와 같은 부산물이 생기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부산물이 생기고, 이 중에는 간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이 발생한다. 흔히 우리가 부약하는 약물도 일단 간에서 처리되어야 약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며, 약리 작용을 끝낸 약물의 주성분도 간에서 처리되어야 신체밖으로 배출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역시 간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용은 개인마다 그 강도 및 발생하는 부산물의 범위가 다르며, 이러한 차이점 '체질'이라 한다. 여기에는 민간요법으로 해먹는 물질 뿐 아니라, 술이나 간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감기약, 진통제, 항생제 및 피부약과 같은 약 및 흔히 말하는 보약을 포함하여 간에 좋다고 처방되는 한약들도 해당된다. 약과 한약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원리는 동일하더라도, 약은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을 단일성분으로 분리 정제한 것이고, 한약은 그러한 과정없이 자연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약

물에 성분별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섭취한 환자는 함께 섭취한 불필요한 성분을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간의 부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나아가서는 오히려 간독성을 가진 부산물에 의하여 간이 파괴를 당할 우려가 한약에서 더욱 높다. 간경변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우선 그 질환에 약물치료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 가장 간독성이 적은 약제를 골라야 한다. 약물을 사용하면서는 정기적인 간검사를 시행하여, 약제로 인한 간독성의 발생여부를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경변환자와 같이 남아있는 간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하는 환자는 신체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음식물을 절대 삼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2) 원인질환에 따른 치료

간경변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원인이 남아 있는 한 지속적으로 간을 파괴해 나간다.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은 간의 재생과 파괴가 반복되면서 간에 흉터가 축적되어 생긴 결과이다. 따라서 이미 간의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마치 우리가 화상을 입어 진물이 나고 할 때는 약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하여 아물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아문뒤에는 약을 바른다고 하여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위와같이 현재의 간을 잘 보존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간의 파괴를 예방하는 것이 바이러스성 간경변환자

# 간경변 치료와 관리



이진호  
(인제대학교 교수)

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알콜성 간경변은 금주를 하면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철저히 금주하여야 한다.

2. 간재생의 촉진

간은 주성분인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간이 재생되기 위해서는 특히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단백식을 권유하나, 지나친

간경변환자는 간기능이 저하함에 따라, 결국 식도정맥류, 복수 및 간성 혼수와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간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간경변에 따른 합병증에 대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식도정맥류는 쉽게 파열되어 피를 토하거나, 양이 적은 경우는 혈변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간경변환자는 출혈의 과거병력이 없더라도 위내시경을 시행하여, 식도정맥류의 유무 및 출혈의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출혈의 가능성이 많거나, 혹은 이미 출혈을 한 경우, 만일 환자가 30세 이전의 젊은 나이로 비교적 간기능이 안정된 경우라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 간경변환자는 외과적 치료를 받기에는 위험이 많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간경변환자는 체내의 염분 및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배에 물이 차게 된다. 소금 1g은 체내에서 약 1ml의 수분을 함유하는 성질

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간경변환자는 가능한 염분섭취를 하루 5g 이하로 제한하고, 수분도 하루 1ml 정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심하게 복수가 찬 경우는 이뇨제 및 복수천자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나, 복수가 심하지 않거나, 심한 복수가 하더라도 너무 빨리 줄이면, 오히려 혈액량을 감소시켜 간과 신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환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경우는 꼭 복막염을 의심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 복막염은 대개 1주에서 10일 정도의 항생제 치료로 쉽게 낫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간경변환자의 몸의 저항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데, 가장 불행한 일의 하나가 비브리오 패혈증이 간경변환자에서 쉽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여름철 바닷물 속에 비브리오라는 세균이 번식하여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은 경우 발생하는데, 전신에 검은 물집이 들고, 열이 나며, 대부분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다. 따라서 간경변환자는 여름철에는 절대로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성 혼수는 환자가 간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고단백음식을 섭취하거나,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 장내 세균에 의하여 유독한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이 체내에 증가하여, 뇌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환자가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는 경우 간성 혼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는 대변의 회수 및 색깔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여야 한다. 간성 혼수에 자주 빠지는 환자는 가능한 고단백식을 피하고, 하루 2회 이상의 대변을 보도록 하여야 한다.

## 남아있는 간을 최대한 보존, 재생토록 간성혼수, 간암등 치명적 합병증 피해야

파괴해 나간다.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은 간의 재생과 파괴가 반복되면서 간에 흉터가 축적되어 생긴 결과이다. 따라서 이미 간의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마치 우리가 화상을 입어 진물이 나고 할 때는 약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하여 아물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아문뒤에는 약을 바른다고 하여도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따라서 위와같이 현재의 간을 잘 보존하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간의 파괴를 예방하는 것이 바이러스성 간경변환자

편식은 기타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간의 온전한 재생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건강약들은 종류가 대단히 많으나, 구체적으로 이들 건강약으로 간경변을 완치시킨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이러한 건강약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간세포의 파괴를 다소 억제하고,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3. 합병증의 치료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환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나는 경우는 꼭 복막염을 의심

### PARLODEL®

The advantage of early combination therapy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만족할만한 Parkinson's Disease 치료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Levodopa 투여량을 감소시킵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Levodopa 장기투여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dyskinesia, fluctuation)를 방지합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환자의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을 개선시킵니다.

Olsson et al., 1989(7)  
Nakanishi et al., 1989(8)  
Grimes et al., 1984(2)

Levodopa

### PLUS PARLODEL®

In early combination therapy



An effective treatment strategy for Parkinson's Disease

#### DRUG INFORMATION

- ▶ 조성·성상: 1. 조성: 1정중 메실산 브로모크립틴(U.S.P.)...2.87mg (브로모크립틴으로서 2.5mg) 2. 성상: 본제는 백색의 원형정제입니다.
- ▶ 효능·효과: 파킨슨씨병
- ▶ 용법·용량: 팔로델은 항상 식사후에 투여해야 합니다. 투여방법은 질환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 적응증에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최대효과를 얻기위하여 정중요법을 시행함이 좋습니다. 1일 1.25mg~40mg을 증상에 따라 투여하십시오.
-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맥각알칼로이드에 민감한 환자. 2.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 심근경색증 등 심한 혈관 장애 혹은 그 기원력자 • 정신병 혹은 그 기원력자 • 소화성 궤양 혹은 그 기원력자 (위장출혈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 신장 및 간장질환환자 3. 부작용: 메스꺼움, 구토, 피로, 졸음, 현기증, 두통, 기립성저혈압, 혼란, 환각, 변비, 구갈, 운동장애, 동통성 각경련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 ▶ 포장단위: 30T, 100T
- ▶ 보합약가: 373.88원/Tab.

Full Product information is available on request.

한국산도스주식회사  
본사: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Tel.784-2882